

일주문



동국대 법인사무처장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에 정안 스님이 11월 14자로 임명됐다. 정안 스님은 1979년 사미계, 8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전사 순직 경찰관 위령 천도제 부원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은 11월 17일 경승실 법당에서 제16회 전사 순직 경찰관 추모 위령 천도제를 봉행했다.



한국도덕운동협회 상임고문에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상임대표는 11월 1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하 법인인 한국도덕운동협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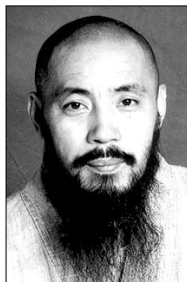
2006년 '국가과학자'에 선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희성 신경과학센터장은 11월 15일 유전자와 두뇌 연구를 통해 질병 치료의 길을 연 공로로 2006년도 국가과학자로 선정됐다.



'여성노동관련법 실무' 출판기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영 지도위원은 11월 22일 오후 5시 국민일보 1층 메트로홀에서 '여성노동관련법 실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아프리카 포교 위한 국토대장정

동봉 스님, 101일간 도보정진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 곳에 한국불교가 진출해야 하는 까닭을 한반도 곳곳을 걸으면서 알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사진)이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난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인천에서 한다.

"아프리카는 이 지구상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입니다. 53개 나라에 9억2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대륙에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가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불교계의 아프리카 진출 당위성을 이같이 강조한 동봉 스님. 때문에 스님은 대장정을 오직 도보로만 진행하고, 매일 20km씩 걷는 동안에도 석가모니불을 정근할 작정이다. 또 동참자들과 아침·저녁으로 <금강경>과 <아미타경>, <초발심자경문>을 독송하며, 속박도 세간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대장정은 다양한 동점이 가능하다. 1일부터 3일, 5일, 7일, 21일, 전체 기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경비는 각자 부담이다. 010-4800-0882.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개인부문 대상 법타 스님·김재영씨 단체부문 대상 불교정보센터

특별상 윤창화·김홍섭·강형진씨 선정

제4회 대원상 발표... 12월 1일 시상식

제4회 대원상 개인부문 대상에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대표)과 김재영(청보리회 법사)씨가, 단체부문 대상에 불교정보센터(대표 정성운)가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1월 14일 회의실에서 제4회 대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또 특별상에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와 김홍섭 보문교 교법사, 니르바나팔파모니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선정됐다. 대원상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500만원, 단체부문은 상패와 상금 2000만원,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승가부문 대상은 법타 스

님은 1997년 북한 사리원에 국수공장을 건립하는 등 20여 년간 북한동포돕기, 북한불교문화재 복원, 남북한 종교교류, 청소년통일운동, 통일법당 개설 운영 등 북한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앞장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됐다.

제가부문 대상의 김재영 법사는 매년 300여 명씩 40여 년간 총 1만여 명의 청소년 불자를 교화 배출했다. 또 서울의 각 고등학교, 주요 사찰 등에 불교학개회, '청보리회'를 창립해 지도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인터넷사이버 전법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의 불교정보센터

는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이 취약한 불교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활동한 점을 인정받았다.

개인부문 특별상을 받은 윤창화 대표는 불교전문 학승사 110종을 발간해 불교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공로, 대전보문교 김홍섭 교법사는 20여 년간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포교와 지도자 양성에 매진한 점이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 특별상 단체상의 니르바나 팔파모니 오케스트라는 불교 음악의 다양한 접근과 창작 활동을 통해 불교문화예술의 격을 한층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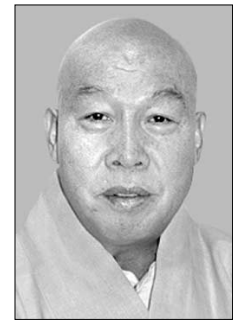
美 워싱턴에 '평화대학교' 설립 추진

보림사 회주 경암 스님 '모금활동'

"워싱턴은 미합중국의 심장입니다. 이곳에 정규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한국불교가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교육 도량을 조성하는 대작불사입니다."

워싱턴 보림사 회주 경암 스님(사진)은 11월 15일, 웨스트 버지니아 주 조지 워싱턴 파크 인근 26만평에 4년제 정규 종합대학 '워싱턴 평화대학교(Washington Peace University)'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연방 교육국에 설립 허가 신청을 마쳤으며, 내년 5월 최종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부지는 2003년에 8억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부지사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전 세계의 불자들은 물론 타종교인까지도 함께 공부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종교, 인문, 사회, 인문 등 20여 학과를 개설해 명실공히 종합대학교의 위상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에 건립되며, 이미 2004년에 미연방정부로부터 12만평의 종교부지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경암 스님은 이 같은 불사를 추진하기 위해 3년에 걸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1차 계획에 들어갈 600억원 조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18일에는 '아란야 국제불교총림 및 워싱턴 평화대학교 건립추진위 한국분원'을 개원했다. (02)913-6311 김철우 기자

지안 스님, 7명에 전등강맥 전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11월 10일 제자 7명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설립이래 처음 열린 전강법회에서 강맥을 전수받은 현봉, 신공, 정묵, 덕선, 지용, 양관, 보문 스님 등에게 전법계를 전한 지안 스님은 "교학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 나눔의집 할머니 초청 가을나들이



김재 금산사주지 원행은 11월 11일 일본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 할머니와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가을 단풍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함께 금산사를 참배하고 전주비빔밥 전문점에서 점심공양을 했다.

법화중 대구종무원장 혜각 스님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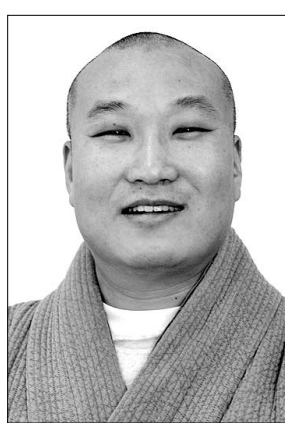


대한불교법화중 대구경북교구 제12대 종무원장에 영선 원행이 취임했다. 법화중 종무원 포교부장을 역임한 혜각 스님은 종무국장 도광, 재무국장 지성, 교무국장 일우, 사서 지용, 감찰과장 운봉 스님을 집행부로 구성해 대구경북 지역 70여개 사찰을 관장하는 종무원에 들어갔다.

"음악치료 외연 넓혀 청소년 포교 배가"

불교명상음악치료협회 창립 준비 보경 스님

"불교와 록음악을 접목시킨 새로운 불교명상음악테라피는 음악치료의 외연확장은 물론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보경 스님(사진)은 내년 1월 (사)불교명상음악치료협회 창립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불교명상음악테라피 1호"라 할 수 있는 보경 스님은 개인교를 비롯한 타종교에서는 음악테라피를 활용한 선교는 물론 사회봉사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불교계가 아직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한국음악치료학회와 대한음악치료학회에서 음악테

라피 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보경 스님은 동국대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명상음악치료' 강의도 내년 1학기부터 시작한다. "음악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음악테라피(Musictherapy)는 90년대 중반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불교계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 없는 미개척 분야죠. 때문에 음악치료에 관심이 있는 스님들과 불자 음악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번에 시도될 '불교+록+차크라'를 가미한 불교명상음악테라피는 음악과 환자의 관계를 적극 고려한 치료음악이다.

특히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치료음악은 안정된 느낌이 강한 클래식 음악처럼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특징이 있다. 증상별 음악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다른 음악테라피와 구별된다.

보경 스님은 내년에 창립될 (사)불교명상음악치료협회에서 불교명상음악치유 활동을 함께 펼쳐갈 불자 음악인을 찾고 있다. 011-887-1875

노병철 기자

大道眞人 육경신 루진통으로 해명을 득도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비법을 얻어 황제가 되는법

생명의 근본은 태식이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육경신의 비밀인 근본 허공청정, 진공 묘유인 운명과 수명과 생명은 정신세계에 있으며 영과 혼의 비밀법을 11월 양력 26일 자시와 11월 27일 진법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신자와 근자 속에 담겨진 근본 비밀 대운명정진 수행법에 입문하시어 운명을 바꾸어 스스로 살수 있는 법 모든생명은 태식 비법에 천하의 권강 비법이 다 들어있다.

달마도법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견성도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방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미장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해하는 육경신수행법인 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고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었인가 알아야 하며,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을 경신일 하늘과 땅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됨 받은 진법인 도리를 해명과 성명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인 비만, 혈압, 당뇨, 관절, 정신질환,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쾌차할 수 있는 심기태식법인 수련으로 건강과 생명을 구하고 남녀혼기를 놓쳐 고생하시는 분들과 조상천도 구병식 대운명이 영산대제로 일체교맥을 소멸하는 영산법에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행통 하소서.

견성도통하는데 가장 빠른 비법 혈단법과 예단경만인 것이다. 견성도통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 유산 살생한 일체영가를 제도해탈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고 천장지비로 감춰진 혈단법, 예단경만이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제도되어 이상에 모든 인연을 끊고 원없는 저세상으로 천도되는 경이교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병술년 루진통 범부나 성인이 해명을 득도하는 비법을 화엄경과 능엄경에 깊은 뜻인 루진통 도통하는 진법을 도통근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을 바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성명과 해명으로 자신에 감춰진 업장을 해원생생 영산법회 봉행

르계 수행하는 법과 서방극락에 다함이 없는 우나라 즉 해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는법이며 견성도통은 뜻도드라도 영통능력과 초능력을 득도하여 말문도통, 글문도통, 의통능력과 심령으로 해명과 성품이 돌로 갈라져 해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늘고 병들어 계속신나 관리못하는 범부나 성인과 중생이나 삼라만상 생명이 들어있는 모든수행자들에게 윤달은해 루진통 특별육경신수행으로 부처나 성현이나 신선이나 황제가 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살아가는 천하제일의 최상승법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루진통을 하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아니며 과거 칠불 시대나 선지식을 비롯 오직 동토조사 달마조사께서 이법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석존에서 달마조사, 육조조사로서 이어진 사상 유래없는 견성도통 심령도통 자신도통하여 전생, 금생, 내생으로 병의된 중생을 제도하는 특별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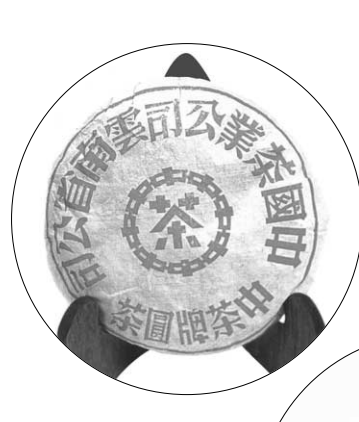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개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다. 병술년은 루진통 해이므로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하로 병이 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운명을 바꾸는 천하의 대도통 진법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큰도통하소서! 마음(心)으로는 해명을 볼 수 없으므로 마음을 다스려야만 견성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명을 보아야 견성도통하는 것이고, 좌선이나 참선으로는 견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일제: 양력 2006년 11월 26일(음, 10월 6일 일) (해시)
●해제: 양력 2006년 11월 27일(음, 10월 7일 일)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평생연구자료비 10만원 ●농협 029-01-167866 객대빌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교개 쪽 300m 관음정사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증본산 태일합장

차용품 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파스 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근면의 윤남성 차업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성(宜興) 정산 황릉산의 홍다원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제작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개가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 티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02)744-3311 / FAX: (02)744-3700